

지금 이시각

2024.12 TIME NOW

스물아홉번째



Pighead Lab



9 773058 233003
ISSN 3058-2334

김가영_ 빈방의 빛

원고 수 ★★★★★

이채연_ 종이 사라 일본 갔다 온 썰1

원고 수 ★★★★★★★★★★★★★★★★★★★★★★★★★★★★★★★★★★

김희진_ 최악으로 일어난 일이 나라서

원고 수 ★★★★★★★★★★★★★★★★★★★★★★★★★★★★★★★★★★

X_ 그 곳에 가고싶다 : 공간영영(00)

원고 수 ★★★★★★

오종원_ 24년 12월, 계엄의 밤

원고 수 ★★★★★★★★★★★★★★★★★★★★★★★★★★★★★★★★★★

김유주_ 소심한 일반인의 글쓰기

원고 수 ★★★★★★★★★★★★★★★★★★★★★★★★★★★★★★★★★★

<지금 이시각>은 주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행위에 집중합니다. 창작의 지속과 그 누적에 가져올 성과에 대해 연습하고 시도하는 장으로써 선보이고자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감을 얻고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향해가는 노력과 인내가 있을 때, 분명 목표에 도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은 그런 행위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며.



빈방의 빛

김 가 영

책과 그림을 읽는 사람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을 다니셔서 나는 어릴 때부터 학교와 학원과 학원 그리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했다. 왜인지 늘 조금 목이 마른 채로 도착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을 마시는 일이었다. 컵에 물 따르는 소리. 쪼르륵, 그 소리가 가득 울릴 정도로 집안은 언제나 너무나 조용했다. 나는 여덟 살이었고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알게 되었다. 외로움을. 컵에 물을 따르면서. 외로워서, 아니 외로움을 잊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다.

거실 큰 창으로는 늘 빛이 쏟아졌다. 빛은 사다리꼴을 하고 바닥에 펼쳐졌는데 나는 언제나 그 빛 속에 앉아 책을 읽었다. 빛이 물러나면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어린 나는 빛과 책과 외로움 속에서 자랐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오지 않았다. 나의 생은 언제나 책과 책장과 그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스무 살이 되던 해 나는 우연히 김환기의 전시회에 가게 되었다. 이후로 그림과 미술사에 푹 빠져 지내며 인상파니 야수파니 하는 크고 무거운 도록을 펼쳐놓고 야심차게 책장을 넘겨대던 어느 날이었다. 내 컨버스 운동화 하얀 앞 코에 작고 네모난 빛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작은 도서관 창으로 가늘게 들어온 햇빛이었다. 나는 그 빛을 알았다. 여덟 살때부터 보아온 빛이었다. 그리고 펼쳐진 도록 속 호퍼의 그림 속에서도 쏟아져내리고 있는 빛이었다. 사다리꼴의 빛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 나는 오래도록 그림을 보았다. 떠날 수가 없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만난 이후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림이 있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다.

네모난 빛 속에 있어본 사람은 안다. 빛은 모든 것을 휘발시키고 마르게 한다는 것을. 그리하여 결국은 텅 비게 만든다는 것을. 나처럼. 빛과 책과 외로움 속에서 자란 사람의 내면처럼.

럼.

환하게 하찮은 존재로 살아가며 나는 자주 호퍼를 들여다 보았다. 세상에 나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위안과 세상에 나같은 사람이 '또' 있는 슬픔을 같이 느끼면서..... 호퍼의 공기는 언제나 적막하다. 그래서 편안하다. 괜찮지 않다는 말을 했어야 했지만 여덟 살이 그런 것을 알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괜찮다. 마음이 망가진 채로도 인간은 얼마든지 살아간다.

다만 삶은 그림의 바깥에 있는 것인데 나는 그 바깥에 속했다는 감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조금 쓸쓸할 때가 있을 뿐이다. 나의 생은 언제나 책과 책장과 그사이 어딘가에 혹은 쏟아지는 적막한 빛과 공기 속에 있을 터인데 그것은 결국, 나의 생은 아무데도 없다는 말과 같을 것이다. 🐾



종이 사러 일본 갔다 온 썰1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남편과 아들, 나 이렇게 9월 22일에서 9월 25일 3박4일로 일본여행을 다녀왔다. 얼핏 단란한 가족여행처럼 보이지만, 일정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오로지 아들(중1, 13세)을 위한 여행임을 알 수 있다. 식사를 제외한 전 일정이 아들의 취미인 종이접기와 관련된 것이다. 아들이 가고 싶고, 좋아하는 곳으로 일정이 꽉 차버려 다른 곳에 갈 여유가 없었다. 이 여행의 시작은 내 통장에 딱 항공권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입금되자 질러 버린 것이다. 항공권을 구입하면서는, 이제까지 가족여행이 그래왔듯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상상했었다. 하지만 여행계획을 짜다 보니 아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말하면 내가(엄마) 구글 지도에 체크하고 계획을 잡았다. 지도를 보면서 아들이 알려 준 정보 말고도 아들이 좋아할만한 곳이 더 없나 찾아보게 되고…. 어느새 우리의 전일정은 종이 접기로 채워져 있었다.

아들이 지시하면 엄마는 계획하고, 아빠는 가이드와 보호자 역할을 맡은 셈이다. 왜 이렇게 되었나를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 여행의 목적은 아들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였던 것 같다. 종이접기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 사춘기가 시작되어 짜증이 늘어난 아이. 그래서 일본여행이 이 아이에게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했다.

나에게 여행이란 돈과 시간을 계산해서 큰 마음먹고 가는 거다. 이렇게 소중한 여행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여유가 없다. 아쉽기는 하지만 아들 덕분에 종이접기와 일본 종이-와시 대해서 경험하게 되어 시각적 견문을 넓혔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들의 웃는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1일차: 9/22(일)

09:30 청주공항-> 11:50 나리타

집에서 가까운 청주공항에서 출발했다. 인천공항에 비하면 대기시간도 짧고, 주차장도 가깝다. 인천공항에서는 국제선은 3시간전 도착해야 하는데, 청주에서는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했는데도 느긋하게 발권하고 식사도 했다.

티켓 발권기에서 체크인 하려고 했는데 미성년인 아들이 있어서 안 돼서 카운터로 가야 했다. 이 상황에서 아들이 나보고 멍청하다고 했다. 확 혈압이 치솟으며 화가 머리 넘어 활활 타올랐다. 여행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다. ㅇㅣㄴㅇㅁㅅㅈㅈ! 폭발 직전이었으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겨우 참았다. 예효 엄마를 호구로 아는지...원
일본 나리타 3터미널에 도착했다. 3터미널 역시 한적해서 좋았다.

오리가미 하우스

점심 먹고 숙소 체크인하고 제일 먼저 간 곳은 오리가미 하우스다. 그만큼 이 여행에서 중요하고 꼭 가야 할 중요한 장소라는 거다. 오리가미 하우스는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지 같은 곳이다. 종이접기 작가 야마구치진의 개인사무실이지만, 종이접기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책도 판매하고 있다. 주상복합건물 2층의 작은 공간에 이 분야의 명작이라 불릴 만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숨겨진 보물 같은 공간 같은 느낌이 든다.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뽐내지 않고 무심하게 자리잡은 것 같다. 여기에 종이접기를 애호하는 전세계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 신기했다.

“오리가미 하우스에서 여러가지 종이접기 작품을 보았다. 작품이 생동감이 있고 종이 한 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가족과 여러가지 종이접기 작품을 보아서 좋았다.’

- 아들의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중에서 -

여행을 오기 전 아들이 오리가미 하우스에 가면 나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 있다고 했다. 오리가미 하우스를 쫓 둘러본 후 아들이 내 손을 이끌고 간 곳은 바로 바이올린 종이접기 작품 앞이다. 아하! 그거!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예전에 아들에게 엄마가 다닌 대학교에서는 1학년 과제로 골판지로 바이올린 만들기가 있었다고 말해 준 적이 있다. 그냥 만들면 안되고, 바이올린이 골판지 하나에 이어져 있어야 하고 전개도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



사진1_종이접기 작품을 관람하는 아들. 작품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보려는 의지가 느껴진다.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왔다. 색종이 한장으로 접은 바이올린이라고 한다. 색종이를 꾸깃꾸깃한 종이 쪼가리로 보였으나, 자세히 보니 기타 같은 악기 같았다. 아들 왈: “바이올린 형태를 잘 몰라서 생각나는 대로 만들었어. 나는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밖에 못 만들었지만 일본 오리가미 하우스에 가면 제대로 된 바이올린을 볼 수 있어.”

한창 종이 접기에 빠져 있는 아들은 골판지로 바이올린 만들기 과제를 골판지는 종이 한 장, 바이올린 전개도의 이어짐은 종이접기의 전개도(CP)로 대입하여 이해한 것 같다. 내가 대학 때 종이접기를 잘 알았더라면, 혹은 아들과 같은 친구가 있어서 종이접기의 방식을 이용해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더라면 A+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망상을 해보기도 했다. (대학 때, 이 과제 점수는 C였던 것 같다. ㅠㅠ)



사진2_오리가미 하우스에 전시된 바이올린.

갈색과 검정의 양면 사각 종이 한장으로 접은 작품이다. 아래쪽에 바이올린 활도 있다.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애니메이션과 전자제품이 많은 상가. 우리나라로 치면 용산전자상가 같은 곳이다.

아들의 늦은 생일선물로 건담 프라모델을 사주기로 하고 간 곳이다. 간 김에 전자제품도 좀 보기도 하고. 아들이 원하는 모델이 없어서 구입은 못했지만 볼거리는 많았다. 특히 거리의 메이드 카페 홍보하는 아이들이 인상적이었다. 혼자 여행 왔었다면 들어 가봤을 것 같다. 메이드 컨셉의 다나카&닛물캐쉬의 <잘자요 아가씨> 노래와 뮤비를 재밌게 봐서 궁금하기



사진3_2022년, 아들이 만든 바이올린.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지만, 초등학생인 아이가 엄마에게 보여주고 소통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참 기특했다.

도 했다. 문득 나 같은 40대 아줌마는 입장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소심 해진다... 언젠가 홍대 앞 힙하다는 카페에 혼자 갔을 때 약간 쪼그라 드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메이트 카페 못가는 대신 시간 될 때 ‘일본 메이드 카페 방문기’는 검색 해봐야겠다.

다음화에서 종이 사러 일본 갔다 온 썰2가 이어집니다. 🐱



최악으로 일어난 일이 나라서

김 희 진

노동자

최악으로 일어난 일이 나라서 오늘밤 내내 불편함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잠을 한 숨도 이루지 못했다. 너무나 충동적인 마음에 무엇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부숴버리고 상황을 도망쳐 내달리다 그것의 안위를 이제서야 뒤늦게 확인하고 고통에 몸서리친다.

영상으로 이런저런 말들을 남겨 놓는 것은 어쩌면 갖가지 유령을 폐허에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폐기된 것과 공생하려는 의지 자체가 어쩌면 무례한, 그래서 심각한 죄책감을 낳는 일인데, 너무나 많은 서사를 껴안아 으스러진 공간에 기어코 비집어 들어가 자리할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 불안을 이 매체(디지털)를 통해 당신과 동질화 할 수 있을까? 하긴 그것에 누구도 관심이 없을 텐데.

일종의 씨를 뿌린다고 말할까.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림을 하고, 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토tem을 들고 (어떤 역사가 함께했는지 알 수 없기에 어떤 종류의 전염을 포함하고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다.) 무어라고 씨불이면서 그 모습을 화면에 담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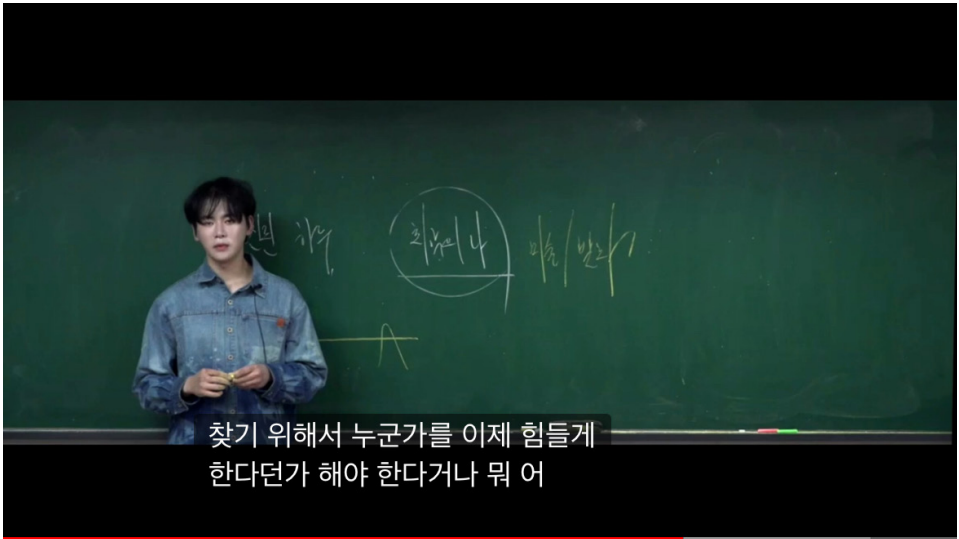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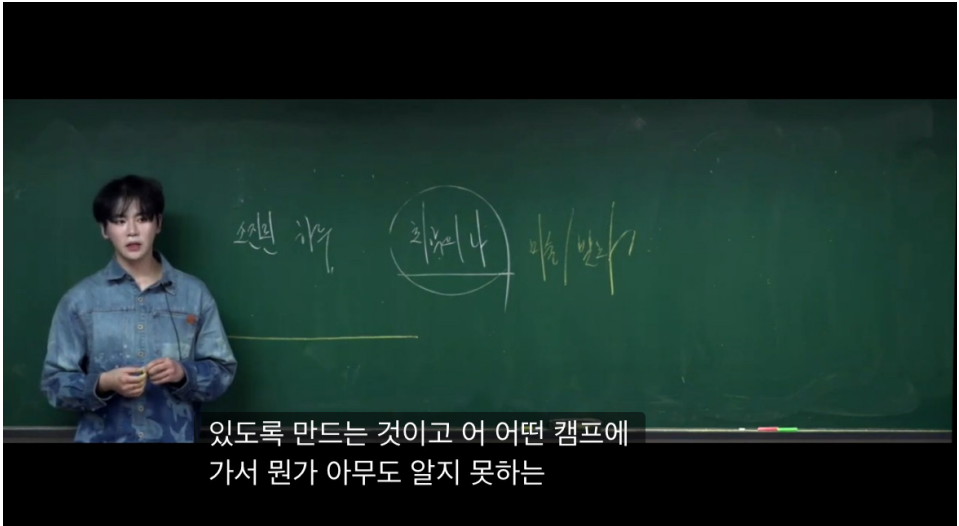
아침마다 누군가 지르는 고향에 눈을 뜨면 (잠에서 깨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나도 어떤 용기가 생겨 적당히 모자를 얹어 쓰고 우거진 풀숲에 들어간다. 누군가 뿌려 놓은 쓰레기 또한 유보 없이 삼켜 충분히 몸집을 부풀린 녹음이 기특한 촉감으로 목덜미를 간질이는데, 그것이 나는 성가서 내쫓는 손짓을 하다 지쳐 풀썩 앉고 만다.

서늘하게 날을 세운 말이나 태도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일 만으로도 생채기를 만든다. 차라리 내가 먼저 미워한다고 말하고 싶다. 은근한 압력에 선부르게 대응하고 차라리 그 칼날을 미리 가슴 한 켠에 찔러 넣고 싶다.

조금만 더 쉬운 방법으로 숨쉬고 싶다. 물 속에 잠겨 있는 덩을 꺼내 물으로 던져버리고 싶다. 찢어버린 어린 날의 메모를 다시 이어 붙여서, 매듭을 지어야 할 텐데 나는 그것이 아직도 두려워 고개를 돌리고 있다.

칼날을 피하고 있다. 칼날이 무서워. 날이 서있는 조각난, 칼날들을 입으로

눈이 자주 시리다. 너무 매워서 앞코리를 가만히 눌렀다. 이러다 시력이 사라지면 어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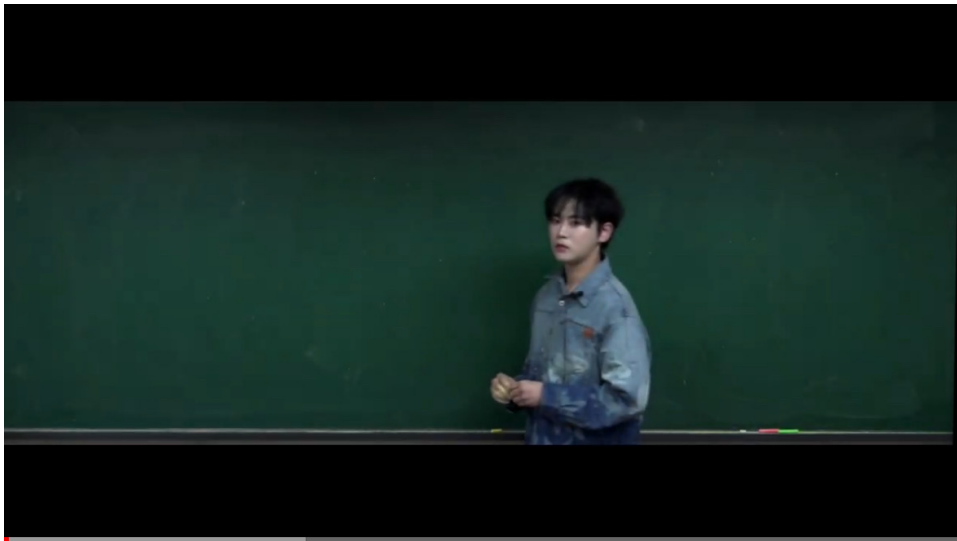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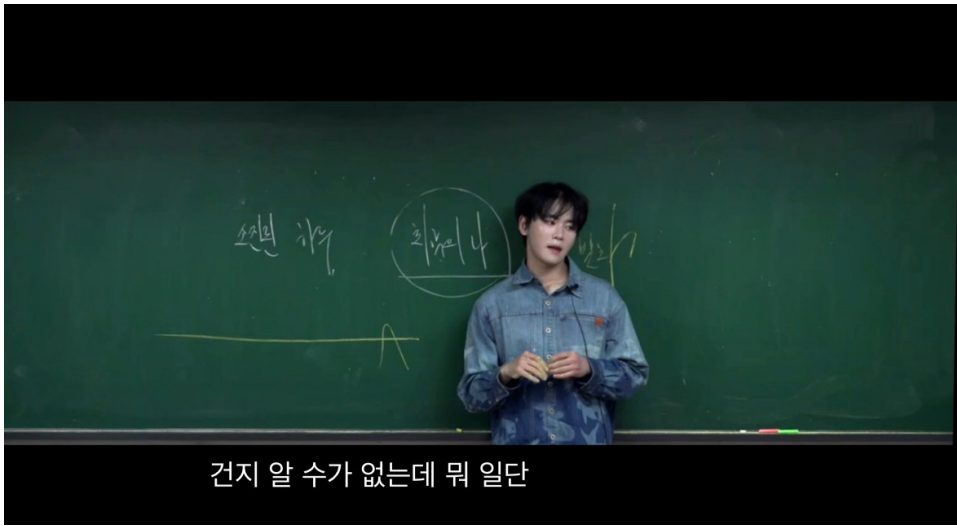


허튼 고민도 한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니다. 그래서 자꾸 무언가 훔치는 시
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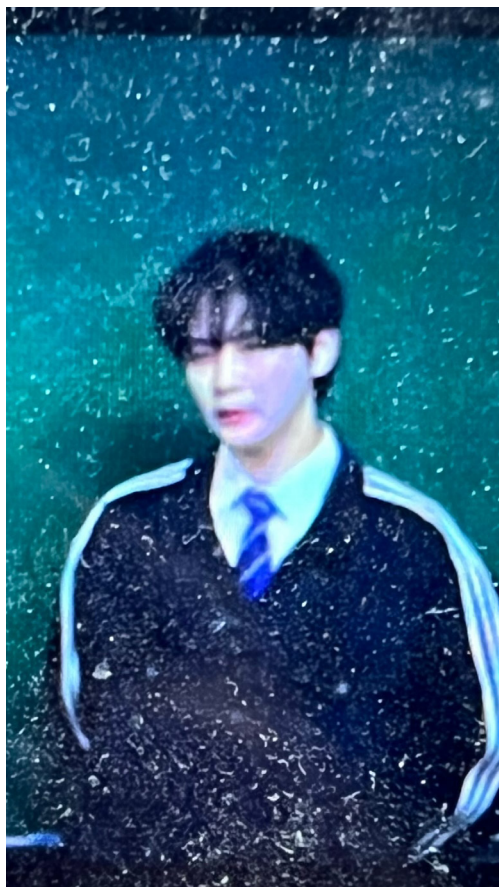
정말로 내가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있는 죄책감. 나도 십이 분의 일 정도 죽
었던, 죽이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피로침을 보다가 문득 생각한다. 제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런 순간이 오면 그것이 행복할까?
다행이라고 생각할까? 그 구성원들이 (전위가 갈아질 때까지) 전하를 나눠가지면 그 모습
이 흐뭇하게 보일까?

아니면 괴롭고, 슬프고 처연한 마음을 숨길 수 없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했냐며 울거나
억울해할까?



이런 고민 아닌 생각을 몇 차례 하다가 이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후회했다.
그렇게 흔해 빠진 생각을 애들 장난 같이 하면서, 결코 정답을 궁금해하지 않는 버릇도 참 웃기다는 인상.
독립하여 살다가 병신 같은 최후를 맞는 상상, 한심한 일상과 도피해 올라간 욕상.
모르는 꽃 또한 그리워질 수 있다. 그것을 흔하게 질투라고 부른다. 알지 못하는 기호들 사이에서 나름의 질서를 발견하고, 원하는 대로 조립하여 규정을 담아내는 일. 어떤 착취에 가까운 일이지만 세계(들)에 포섭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정말로 언명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채집된 조각이다.
감각적인 기호는 언제나 폭력 그 자체이고, 기억력을 동원하며 영혼을 움직인다. 누군가 내게 사람을 죽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나는 당연히 없다며 눈을 둥글게 뜨지만, 정말로 없는가 속으로 내게 다시 묻고 지레 당황하는 모습 또한 숨기지 못한다.
숨기지 말고 가까이 오라는 그의 말에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주변에 날카로운 물건을 찾고 일련의 고문 과정 따위를 감각하면서 성스러운? 또는 상스러운 쾌를 부여하는 모순에 도달한다. 🐈







그 곳에 가고싶다 : 공간영영(00)

X

작가 & 전시기획자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곳..지하에 창고로만 쓰인 공간을 2020년부터 전시 공간으로 운영해 온 공동환 작가를 지난 10월 인터뷰하게 되었다. 부산에서 미대를 졸업하자마자 새로운 시도를 꿈꾸며 시작했다고 하였다. 그는 지역 미술계에서 지난 시간동안 노력하고 느낀바를 털어냈다. 그가 앞으로 어떤 방식과 형식으로 현 공간을 운영할지 또 어떤 작품을 보여줄지 미스테리지만 자신만의 길을 가는 작가가 되길 기대한다.....”

10월 쌀쌀한 오후 부산에 찬 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다. 망미단로 카페가 유명하다고 했었는데 공동환 작가를 만나면 늘 주변 동네 카페를 가곤 하였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잡다한 수다를 떠드는 것이 사치가 아닌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카페클래치(Kaffeklatsch)에서부터 여러 창의적이고 변화적인 생각이 시작된다. 19세기말 비엔나의 카페처럼 말이다. 내 인터뷰도 이렇게 시작되었다.

공간영영은 공동환 작가가 2019년에 한 기사를 보고 소규모 전시 공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공간을 전에 사용한 임차인은 개인 사무실이면서 창고로 운영했다고 한다. 공작가는 초창기에 잠시 카페도 해 볼 생각이었지만 스스로 전시 활동을 하면서 상업보다 비상업적 공간을 먼저 염두했고 부산 예술 주류에서 보지 못한 전시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갓 대학을 졸업하고 야심에 찬 시작이었다.

1 년에 3번에서 4 번 정도 전시를 하였고 대부분 팔리는 작품보다 안 팔리는 작품이 더 많았지만 작가이면서 공간 운영자로서 활동하면서 친구 지인등 여러 아는 작가들을 초대에서 전시를 개최했었고 그 만큼 네트워킹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때론 공간 운영자로서 다룬 대우를 받았던 것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운영하는 것도 사업이고 수익이 있지 않으면 예술 활동이 철저한 소비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느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원금 신청이 필요하고 작

품을 그래도 몇 점은 팔아야하는 등 여러 수익에 관한 적지 않은 고민이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난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술을 왜 계속 해야하는 가?” 란 질문을 스스로 던졌다고 했다.

그는 예술 작품이 소비재가 아닌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예술 작품이 철저한 무가치로서 스스로 존재가 발현될 때 예술적 가치가 상승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의 말을 들으니 2010년 베를린 예술 서점에서 운명처럼 만난 발터 벤야민의 ‘아우라’이론이 담긴 기술 복제 에세이가 떠올랐다. 벤야민에게는 바로 이 ‘아우라’가 예술 작품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난 이 책이 1935년에 나왔고 벤야민이 예술의 미래를 이미 예견했다는 것에서 그의 천재성을 인식했다. 안타깝게도 1940년에 나치 정복에 슬퍼하며 카탈루냐에서 모르핀 과다 복용을 하며 자살 했지만 말이다.

공작가의 “예술을 왜 계속하나?” 는 질문은 창작 활동이 단순히 예술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나 표현을 넘어서 예술가의 사회활동 속에서 깨달음과도 결부된다. 예술가의 사회 참여, 사회적 책임은 어느 세기에서나 있어왔고 오히려 성공한 예술가는 처절하게 이 부분을 인식하고 활동해왔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의뢰받는 과정의 자기보호와 재치 그리고 다빈치가 메디치가에 후원을 받는 활동 과정은 작가로서 결국 자기만의 ‘에고(Ego)’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작품을 이해시키면서도 예술가를 이해하려는 사람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예술가의 지위는 단순히 작품이 잘 팔려서도 여러 사람이 칭찬을 해준다고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못 따라 준다는 태도로도 얻어지지 않는다. 작가가 사회적 인정에 도달하는 과정은 멀고도 험하다. 또한 작가 스스로도 자기가 만든 모든 작품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술가의 ‘과정’ 과 ‘지속성’이다. 예술가 스스로가 예술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속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의사소통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공작가를 인터뷰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은 어디일지가 궁금했다. 그는 현재는 내년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다른 예술가와 같이 공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상업적 공간으로 만들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자기가 느끼는 사회적 웃은 현재 ‘작가’ 가 더 편하지만 어찌보면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다시 공간 운영하면 더 잘할수 있을거 같다고 말했다.

아직은 항해를 이어가는 과정으로 여러 스케치가 나올 수 있는 젊은 작가이기에 나에게는 응원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부산을 지키며 공간을 운영할 것이고 특히 공작가에게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고향이면서도 놀이터이다.

공작가가 보여준 전시 ‘부산’의 배 모양의 작품에는 작가의 지난 부산에 대한 시간과 공간이 담겨있지만 앞으로 보여줄 미래의 공간과 기억도 나에게는 보였다. 그게 어떤 형상을 띄던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공동환 <배> , mixed media,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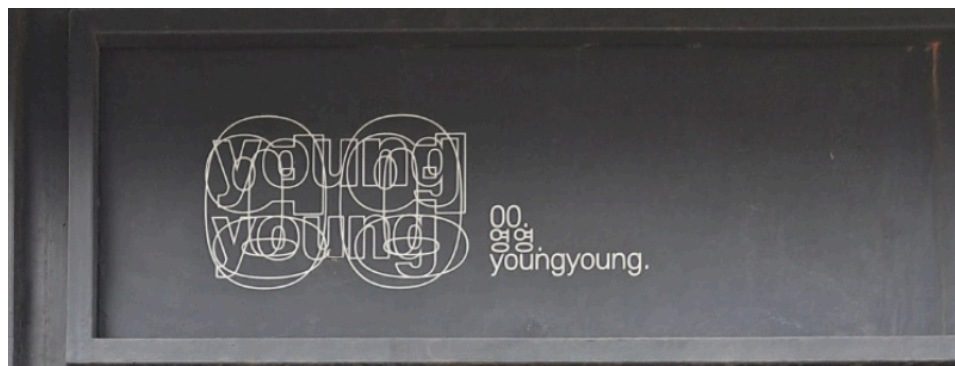
인터뷰를 마치고 부산의 다른 대안 공간에 전시를 보러갔다. 프랑스 학창시절이 떠오르는 전시였다. 누구나 우린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요셉 보이스가 수 년전 크게 내뱉은 말이었다. 보이스는 민주주의적 세계를 꿈꾸고 독일 녹색당 창당에도 참여했던 작가라 그의 표현은 당연히 정치적인 성향을 내포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SNS는 이 누구나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더 빠르게 확산시킨다. 현재 예술가로서 인정받으려는 것은 사실 심리적인 애정결핍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예술가는 군중의 인정보다는 후원자의 인정을 더 바랬다. 소수의 전문가의 인정을 원했지 다수에게서 굳이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예술가가 이런 애정결핍과 연예인과의 혼돈 속에서 이 “인정”에 더 갈망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당신이 예술가라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과 이 “인정”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하는 것 또한 감내해야할 것이다. 예술가의 길은 고독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알면 인정을 받는 것도 언젠가는 의미가 없다는 것도 일찍 깨달을 것이다. 어쩌면 예술가에게는 ‘과정’과 ‘철학의 완성’ 이 제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제일 많이 들은 표현이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선택했다’ 라는 표현이었다. 프랑스에 왜 왔냐는 질문에 내가 프랑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가 날 선택해서 왔다라고 답했다. 사실이었다. 독일에 살면서 점점 꿈 속에 프랑스가 보였고 난 내가 프랑스로 갈 것이라고 느꼈다. 당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지만 깨달았다.

내가 예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술이 나를 선택한 것이어야지 나의 철학이 설 것이고 직업 소명의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수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무소의 뽕처럼 걸어갈 것이다. 🐾

공간영영 간판, 부산시 수영구 망미변영로 521번길 5 지하 1 층 @exhibition00_





(위)
공간영역 2024년 전시 <부산>
큐레이터 윤혜영
(우)
공간영역 운영자 공동환





24년 12월, 계엄의 밤

오 종 원

문화소비자 / 피그헤드랩 운영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최대한 훈훈한 이야기로 <지금 이시각>의 24년을 마무리하려 하였다. 피그헤드랩의 24년 정산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준비하고 또 다른 필진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드라마틱한 일이 터지고야 만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라니. 이런 진귀한 상황을 실제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계엄이 무엇인가. 굳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 계엄이 국내에 발령된 상황을 떠올려보면 되겠다. 나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이지만 국내의 계엄은 6.25를 제외하면 민주화의 과정에서 피를 흘린 사건들의 경우이다. 다시, 6.25 이후의 계엄은 사실상 독재자에 항변하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는 대중들을 억압하려는 군부의 강압이자 폭거인 과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국가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의 민주주의 선진국이 되기까지 무수한 피를 흘리게 만든 상황 중에 하나였으며 시대의 큰 상처라고 보고 있다.

아무튼 12월 3일 늦은 밤, 나는 늦은 시간까지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흥얼거리며 집에 들어가던 참이었다. 내가 들어가 있던 단톡방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군인들이 출동했다는 메시지를 누군가 올리는 것이다. 나는 “아무리 지금 정부가 싫어도 말도 안된다. 이런 거짓말은 좋지 않다”며 되려 그 사람에게 한 소리 했었다. 그러나 이윽고 이 방 저 방에서 계엄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도로 위 장갑차 사진도 올라온다. 그래서 부랴부랴 본가에 전화해 주무시는 부모님을 깨웠다. 혹시 모르니 뉴스를 틀어놓고 계시라고.(이 와중에 너 술 취했냐고 물어보는 어머니의 말씀이 웃음 포인트였다.)

서둘러 집에 도착하자마자 TV를 켜더니 바로 계엄에 대한 긴급 뉴스가 나온다. 처음엔 북한이 전쟁이라도 선포한 줄 알았다. 갑자기 계엄이라니? 요즘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북이 남침이라도 한 것일까? 먼저 아나운서들이 정신없어 보였고 계속해서 기자들을 통해 상황을 접수하려는 모습들만 나왔다. 이윽고 군인들이 국회에 침투하는 장면이 잡혔다. 그 전까지는 야밤의 해프닝 같은 느낌이라면, 군이 국회로 침투하려는 것부터 심각한 문제로

넘어가는 듯 했다. 그 순간부터 술이 확 깨더라. 대한민국 현대사를 배운 입장에서 저것이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군을 통해 국회를 장악한다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현대사에 몇 번 반복되었던 피와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라 배우지 않았다.

화면에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였고 내가 속한 단톡방들도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꼭 정치와 관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다들 동요하고 있었다. 물론 개 중에는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냐며 낄낄거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특히 군인들이 국회에 침투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기 시작하였을 때 나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경악하는 것이다. 어라 이거 진짜네. 진짜 침투하여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네. 그 장면을 보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유를 찾아보았다. 군이 억지로 찾지 않더라도 많은 화면에서, 또 온라인에서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자...” 욕이 나오더라. 나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정치애기는 되도록 줄이고자 하고, 또 SNS에서 과거의 글들을 보게 될 때마다 너무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지점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자제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번 계엄은 보자마자 화부터 올라왔다. 그 다음에는 너무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아이고 저런. 어쩌다 저런 어리석은 선택을. 무력으로 소통을 단절시키는 시대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의 현대사란 국민들은 그것을 극복한 역사인데.

아니나 다를까 국회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군인들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 그럼 그렇지 싶었다. 군 복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하다못해 영화만 봐도 잘 통솔된 군인들이 작전을 취하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뚫고 통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한 군인들은 그리 빠른 행동력을 취하지도, 또 즉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군인의 신분으로 지시가 내려왔으니 따르기가 하겠지만, 본인들도 이것은 말도 안된다 느끼지 않을까. 다음날 관련 기사들이 올라오며 관련 군 출신 민간인들이 군인들을 설득하거나 막는 모습 등을 보면서, 계엄상황에 놓인 군인들도 스스로 얼마나 허황되고 당황스러웠을까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화면이 전환되며, 곧 국회 안으로 의원들이 모이는 모습이 보였다. 빨리 진행하자는 재촉과 상황을 주시하는 의장의 모습에서 이들 역시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일지 느껴졌다. 국회의 입구가 막혔다고 하지만 적당히 요령 있게 의원들은 들어오고 있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도 이리 당혹스러워 할 정도면 미리 대대적으로 준비된 작전 같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의도로 잔뜩 몰려 있는 시민들, 황당한 표정과 함께 분노와 비장함을 갖춘 시민들을 보며 “그럼 그렇지! 계엄이 가능하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약 1시, 결국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선언되고 환호소리를 들으며 바로 잠에 들었다.

다음날 출근길 내내 뉴스에서는 계엄의 이유와 상황에 대해 당황스러움이 묻어난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도착한 회사는 아침부터 어제 밤 일로 난리이다. 회사가 아무래도 현대사, 민주화와 관련이 있는 곳이다 보니 대통령이 직접 계엄 해제를 발표한 오전 4시까지 자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내 상사는 다른 이유로 여의도에서 늦게까지 술 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자리를 마치며 나오니 엄청난 헬기소리가 들려왔단다. 그리고 사람들이 국회로 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행들과 함께 쫓으니 이윽고 철폐된 국회와 함께 항의하는 시민들을 보았다고 한다. 의원들이 국회의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시민들이 담을 넘게 도와주거나 단체로 문을 밀치는 등, 국회에 입장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들이 있었다고 하였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켜 나간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는 대목이었다.

이후로도 회사에서, 밥 먹으러 들린 식당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단체방에서 계엄 얘기는 계속 되는 이슈였다. 많은 이들이 4시까지 잠을 못 잤다고 한다. 그러면서 계엄을 내린 이유에 대한 추측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논하였다. 그랬다. 사실 나도 계엄은 계엄이고 대체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다. 누군가는 그냥 대통령 그만두고 싶었는데 자진 사퇴 없으면 모양새가 없다는 의견도, 그 짧은 찰나에 계엄보다 더 심각한 일을 조치하느냐 계엄이라는 것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이야기도, 굿이라도 했나 하는 신비주의적 관점도 있었다. 계엄을 선포한 일시가 한문으로 풀이하면 임금 왕(王, 十二월 三일, 十시 三十分이라고) 자를 구성하는 한문이라고. 대통령이 후보시절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다닌 것이 방송되었기 때문에 다들 그럴 수도 있다는 분위기였다.

누군가가 대통령이 보수 유투버들의 음모론을 듣고 행동한 것 같다는 의견을 얘기하더라. 이때는 간단히 듣고 말았는데 훗날 선관위를 쳐들어간 것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특히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보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나도 들은 바 있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였다면 보통 웃기는 일이 아니다. 만약 선관위를 침투하여 그 주장에 맞는 증거를 잡아내었다면, 지금의 국회는 위법이 되는 것이고 계엄 해제도 무효 되는 것이라고. 이 의견도 꽤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사유, 종북이나 반국가 세력이란 표현은 사실상 보수 단체에서나 쓰는 음모론적 표현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제일 근본적인 것은 영부인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것일테다. 총선 이후 야당이 과반수인 지금, 명태균 스캔들이 미치는 영향과 증거들은 이미 대통령 내외를 압박하기에 충분하였다. 그 위기감의 해결을, 선관위에서 증거를 잡아내 국회 해산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사실 혼자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인 만큼 그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물론 법을 잘 안다가 과거형일지 모르겠지만, 계엄이라는 것의 정의와 절차가 얼마나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지도 모를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런 선택을 하였고

또 왜 이런 뻘한 실패를 불러일으킨 것일까? 애초에 계획은 거의 완벽하였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꺾방을 하였거나 양심적 선택으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일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계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명하게 알고 있는 누군가가 어떤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일까?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하였을 때, 나는 대통령의 곁에 책임을 물 수 있어도 직언을 하는 인물이 없었다고 본다.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각하,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 또 아주 근접한 위치에서 굳은 책임감을 가지고 충언을 하는 인물이 없지 않았을까. 현재까지 접할 수 있는 뉴스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였다고 공개적으로 언급된 사람은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씨가 거의 유일한 것 같다. 그는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그 명단을 들고 나서는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거부하였고, 이후 경질 지시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가, 나도 경험해본 바 있는 어떠한 리더들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분명 젊은 시절에는 울곧고 충명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재량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충분히 잘 발휘했을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노년에 접어들어가며 혼란을 느끼는 경우들을 보아왔다. 그것은 일종의 위기의 단계로, 자의심과 자존감 사이에서 혼란해 하면서도 정작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꼭 노년만 포함되겠나, 그것은 나이를 떠나 어떠한 권위가 생기는 단계에서는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일일 것이다. 하다못해 인턴 직원이 후배가 생기자마자, 신입생이 학년이 오르자마자 발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다.

대통령은 분명 충명한 인물이었고 또 대단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꼭 과거형으로 말할 것도 없이, 지금도 분명 대단한 인물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점점 심화되는 정당 갈등의 상황, 전체적으로 하락해가는 세계 경제 속 위태로운 한국, 연거푸 목이 조여오는 영부인의 스캔들 속에서 공정하고 담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닳아가는 자신의 그릇에 비해 너무나 큰 위치에서 간사함에 넘어가지 않으려 달은 귀에는 충언과 조언 또한 들리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 그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해해보려고는 한다.

아무튼 계엄은 어떤 최신의 밈으로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인터넷 유머 글에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대통령 내외 사진과 “계엄”이라는 답변이 달리기도 하였고, 또 전두환의 사진에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것도 돌고 있었다. 이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고 다시한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끓어 오르고 있다. 나는 이것이 아주 좋은 반응이라 생각한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도 그랬지만, 아무리 흥미 없고 눈치 없는 이야기일지 언정 그럼에도 누군가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편이든 반대의 편이

든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본 문에 추가하여 7일 늦은 오후, 나는 여의도로 향했다. 민주당이 세운 전략인 ‘윤석열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같이 의결한다’는 생각은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여의도에 모두가 탄핵을 외치는 마당에 국민의 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만 부결 투표를 던졌고 그 다음 이어진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서는 모두 자리를 일어나버렸다. 국회의장이 연거푸 호소할 정도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와중에 투표라도 행해달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국민의 힘은 무시하고 만 것이다.

그들이 필요할 때엔 목매달며 투표해달라고 하던 것이, 정작 본인들이 불리할 때엔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느낀 것은 실망감이었다.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 자체에, 그리고 짧지 않은 현대사 속에서 그들의 전신들이 계속해서 저지른 사고들을 떠올리며. 그러나 지금은 여이고 야이고, 진보이고 보수이고 하는 것을 떠나 내 당의 대표, 우리 식구의 대장이 친 사고에 대해 그 어떤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탑이 무너질 때,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 주면서까지 본인들의 생존만을 고민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이에 매우 격분하게 되었다. 나는 이것을 잊지 않고, 역사 또한 이 상황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이다. 🐱



소심한 일반인의 글쓰기



김 유 주

존재하기를 꿈꾸는

초등학생 때 학교에 토론시간이 있었다. 토론에 나가 발언을 하는 아이들은 늘 정해져 있었는데, 격한 감정이 실린 목소리가 오고가면 무대 아래 앉아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내가 더 가슴이 떨리고 긴장이 됐다. 40명에 육박하는 어린이들을 품고 있는 교실이 한 학년에 6, 7개 있던 시절이었음에도 무대 위에서 토론을 하는 아이들은 한손에 꼽히는 인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뻑뻑하게 놓인 의자에 앉아 무대 위에서 토론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많은 어린이 틈에 바로 내가 있었다. 그러니 나는 소극적이거나 소심하다기보다는 아주 평범한 보통의 어린이였다고, 조금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직업상 초등학생들을 관찰할 기회가 많은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의 다툼을 중재하게 된다. 어른이 되어보니 아이들의 것보다 더 많고 더 하찮은 갈등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된다. 이게 어른들의 세계다. 나는 그 틈에서 더 소심한 어른이 되었다. 이제는 나란히 앉아 있는 친구들이 없으니 내가 평범한 것이라 말할 확신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반 칠십년을 살면서 갈등은 늘 있어왔다. 주변에, 더 가까운 주변에, 그리고 나에게. 다툼의 출발은 '다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이해의 결여가 있다. '이해'라는 것은 시간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가 짧은 현대의 삶에서 이해는 어쩌면 사치일지 모른다. 다름에서 출발한 다툼을 목격하고 경험하며 나는 표현의 양면을 알게 됐다. 그것은 소통의 창구가 되고 공감에 이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다름을 떠올리게 하고 다툼에 이르기도 한다. 나는 더욱 표현이 두려워졌고, 나의 세계는 자의적으로 더 작아졌다. 다툼을 피하고자 소통의 문을 더 좁혀버린 것이다.

어딘가에 정기적으로 글을 연재하거나 혹은 어떤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글쓰기를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톡, 메신저이다. 전화보다 카톡을 더 많이 하는 시대다. 메일이나 편지와 다르게 카톡은 생각을 아주 빠르게 기록으로 전환한다. 일상에서 생각 없이 뱉은 가벼운 대화나 순간의 감정들이 기록으로 남으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불씨가 된다. 누군가와 대면해서 수다를 떨어도, 순간 불편한 표현들이 스칠 때가 있다. 수다는 흐름을 타며 휘발되기 때문에 불씨를 남기기가 어렵지만 카톡은 아니다. 이 노랗고 귀여운 메신저는 그 불씨들을 남겨놓는다. 곱씹을 필요도 없이 손가락만 몇 번 쓱쓱 밀면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기록되어있다. 내가 보기에 카톡은 아주 위험한 지뢰가 무한 생성되는 지대 같다.

모든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의 실수를 한다. 경중의 차이일 뿐, 우리는 모두 순간적인 잘못을 범하며 사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아니면 살기 힘든 사회가 될까?

소심한 일반인에게 글쓰기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것은 타인과의 다툼에 대한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이제 메신저에서 SNS로 범위를 넓혀보자. 누군가 (짐작컨대) 아주 깊게 빠져있던 생각을 정리해서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업로드 한다. 다른 이가 보기에 그 생각은 경솔해 보일 수도 있고, 다름을 느끼게 함으로써 비판의 씨앗을 발아시킬 수도 있다.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했더니, 그것이 맹수의 우리에게 던져진 생고기 덩어리마냥 비판이라는 사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터넷 세상에서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다.

거기에 더해, 맹수 중 한 명이 미래의 자신일 수도 있다. 오늘 박제해둔 글이 1년 후의 나에게 부끄러운 글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발표를 힘들어했다. 많은 이들의 앞에 서서 술술 발표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학창시절엔 내가 그린 그림이나 내가 쓴 글이 복도에 전시되면 나는 졸업할 때까지 그것이 내 작품이라고 절대 밝히지 않았다.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늘 살아있는 위인이었다.

여기까지, 글쓰기에 대해 내가 갖고 있던 두려움을 늘어놓아 보았다.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다.

작년 3월, 그러니까 1년 하고도 9개월 전이다. 나는 여행을 하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했었는데, 그 중 하나가 sns에 글을 올리고, '지우고 싶은 마음을 꼭 참기'였다. 한국에 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여행기를 연재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지금이시각]이었다.

기회는 늘 있다. 그러나 기회를 잡을 준비는, 대체로, 되어있지 않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극복해 볼 기회를 맞이한 나는 당연하게도 고민에 빠졌다. '나는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준비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답을 찾았다. 이 기회를 잡을 준비에 필요한 것은 오직 용기였다. 용기만큼 온 빨과 기복이 큰 준비물이 어디 있을까. 당시 나는 낯선 곳에 적응해나가며 약간의 용기를 얻은 참이었다. '그래, 해보자.'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 날 나의 기분이 한껏 좋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하다. 여담이지만, 그 때 한 주간 타국에서 첫 생일을 코 앞에 두고 있었고, 궂죄죄한 꼴로 무려 오성급 호텔에 가게 되는데, 타지마할을 보러 가며 수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생일파티를 견뎌냈다. (감사하게도 호스텔에서 몇몇 외국인들이 나의 생일파티를 서프라이즈로 준비해줬고, 내성적인 나는 그들의 앞에서 감사를 인사하며 구멍에 숨고 싶은 걸 간신히 견뎌야했다.)

게다가 여행을 떠난 지 8개월, 국외의 도시들을 떠돌고 있던 나는 매일 매 순간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쓰며 지내고 있었다. 일정한 루틴이 막 그리워지던 참이었다. sns에 글을 올리는 것도 꾸준히 하다 보니 두려움이 차츰 줄었다. 또 새로운 과제가 필요했다. 기분과 필요가 만나 용기라는 가상의 정체를 잠깐 가졌던 것 같다. 그것이 가상의 무엇이었는지, 진짜 용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나는 그 순간에 그 용기의 힘을 빌렸음에 틀림없다.

나의 생각과 글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던 내게 글쓰기라는 극복할 대상이 생겼다. 당연히 처음은 힘들었다. 매달 한 번의 연재지만 한 달 내내 두려움을 극복하고 글을 연재하고 나서는 잊어버리려고 애쓰기도 했다. 제대로 글을 써 본 경험이 없는 나는 초고를 8번 이상 수정하기도 했다. ‘최종’, ‘이번엔 진짜’, ‘마지막’, ‘최최최종’ 등의 이름을 단 파일들이 쌓여갔다. 가까운 친구에게 글을 읽어달라며 그렇게 피하고 싶던 비판을 부탁하기도 했다.

중간에 여행을 마치고 연재를 쉬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여행기를 쓰면서 추억을 반추하는 일이 즐겁기도 했다. 1년 넘게 연재를 하고 돌아보니, 세상엔 참- 지나고 보면 별 거 아닌 일이 시작할 땐 아주 큰 산을 넘듯이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 쓰는 글이 어렵고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 용기를 내는 것에 비하면 별 것 아니었다.

글을 쓰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매일 쓰는 일기와는 또 다른 용기. 나의 생각과 표현이 글로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읽혀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반면,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나는 이 웹진의 작가님들을 크게 존경하게 되었다. 무언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벌여온 대표님부터, 매달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 작가님들. 어렸을 때 선망하던 발표자를 보듯이 그들을 본다. 참, 멋있다.

용기만 준비되어 있다면 글을 쓰는 것은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다. 나도 했으니까. 두려움을 버리면 카톡방은 지뢰밭이 아니라 추억의 장이 된다. 어떤 마음 상태인지가 세상을 이렇게나 뒤집어놓는다.

나는 이 글쓰기를 통해 맹수들과 조금 친해졌다. 그래서, 오늘의 글은 맹수 중 한 명인 미래의 나에게 남겨본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생각보다 살만하다고. 어릴 적 초등학교 토론회에 말도 안 되는 무논리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친구가 있었다. 불통 그 자체였다. ‘저러면 친구들과 멀어지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토론회를 봤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 친구

는 평소에는 그저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다. 적당한 친구들과 적당히 잘 지내는.

잘 해야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내게는 큰 숙제였던 것 같다. 애초에 잘 할 수 없는 것인데도 자신에게 무리한 잣대를 들이밀었던 것이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라는 쉬운 말이 참 어려웠었다.

이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글쓰기를 끝내려고 한다. 보통의 초등학생이었던 소심한 일반인인 나는 여전히 소심한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지만, 글쓰기를 통해 내 삶이 조금은 가벼워졌다고 믿는다.

ADIEU !



표지이미지 :

떡볶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시장의 별미, 학교 앞 가성비 간식, 첫사랑과의 데이트 음식 등 누구에게나 떡볶이가 마음 속 깊이 들어간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경우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었다. 살아 계실 적 할머니께서 자주 해주시기도 하였고(분식 포장마차를 잠깐 하셨다고), 또 나도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 쉽게 만드는 음식이라 떡볶이 자체에 그렇게 큰 애착이 있지는 않았다.

어느 날 누군가를 위해, 어느 때 처럼 떡볶이를 요리해주고 있었다. 내 판에는 신경 쓴다고 이것 저것 좋은 것은 다 넣고 있었는데, 뒤에서 조심이 이야기 하더라. “종원씨, 나 사실 분식집 떡볶이가 먹고 싶어.”

아니 이렇게 육수를 내고 갖은 해물과 소스로 맛을 내는데, 고작 분식집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처음엔 이해를 못했다가 집 근처 분식집에서 분식을 포장해 먹어보고, 엽떡이란 것을 간만에 시켜 먹어보고, 마라 맛도 먹어보고 로제 맛도 먹어보고 하다 보니 어느덧 떡볶이란 단어만 들어도 입에서 군침이 돈다.

근래 집 근처에 매우 맛있는 즉석떡볶이 집을 알게 되었다. 의외로 역사가 깊은 집이었는데 가격도 저렴한데 양은 푸짐하고, 학생들에게는 서비스도 많이 준다. 술도 팔지 않는다. 떡볶이 맛은? 분명 어느정도 예측과 재현이 가능한 그 맛이다. 그런데도 그 분위기, 그 냄비, 그 보글보글 끓는 냄비는 결코 따라할 수 없더라.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씩, 복음밥 마무리까지 해서 먹고 나온다. 즉석떡볶이 덕분에 포근하고 살이 찌오는 연말이 된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은 물론,
자신만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작업물,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아카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 10pt 기준 3페이지 정도, 혹은 그 이상 / 프로필 사진
과 필명, 자기소개를 pigheadlab@gmail.com 메일 접수

<지금 이시각>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
(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내 콘텐츠 사용, 문의 등은 우선하여 피그헤드랩
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4. 12, 스물아홉번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www.pigheadlab.com)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문화공간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이번 달 참여 필진 : 김가영, 김유주, 김희진, 오종원, X, 이채연